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선 희 라(경북대 박사과정) · 전 귀 연(경북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개인적 차원의 강점인 자아탄력성과 가족적 차원의 강점인 가족탄력성을 고려하여 결혼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가 역경 속에서도 안정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및 가족의 강점에 대한 이해의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하여 대구·경북 소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 학생이 있는 초등·중학교에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최종적으로 123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결혼안정성 척도는 Booth와 Edwards(1983)가 개발한 결혼불안정성척도(MII: Marital Instability Index)를 사용하였으며,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하위요인은 가족학 전공자 3인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본 연구자가 ‘대인관계(3문항)’, ‘호기심과 활력성(7문항)’, ‘행동 및 감정통제(4문항)’로 구성하였다. 가족탄력성 척도는 Walsh(1998)의 가족탄력성의 이론을 근거로 박주연(2011)이 재구성한 가족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념체계(12문항)’, ‘조직패턴(8문항)’, ‘의사소통과정(10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해 기술통계 분석과 중다회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호기심과 활력성’이 높을수록, ‘행동 및 감정통제’가 능숙할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호기심과 활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대처자원을 많이 획득하며, 감정 및 행동 통제능력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수용, 인내, 최소화하는 것을 통해 결혼안정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둘째,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조직패턴’이 높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경의 상황에서 가족의 역할유연성이 있고,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지지 및 협력이 이루어질 때 결혼안정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셋째, ‘조직패턴’이 결혼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호기심과 활력성’이 그 영향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 차원의 강점인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에서 ‘호기심 및 활력성’, 가족적 차원의 강점인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에서 ‘조직패턴’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의 ‘호기심과 활력성’ 성향이 높으면 어떠한 보호요인을 획득하게 되어 결혼안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후연구를 통해 밝히고 그 보호요인에 대한 지원을 높여 그들의 결혼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 내 조직패턴을 강화시키기 위한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결혼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